

[Economist] 박상현 2122-9196 shpark@hi-ib.com / 류진이 2122-9210 jinlee@hi-ib.com

## 중국 트리플 약세: 대만 대선 리스크 마저

그림1. 중국과 한국 증시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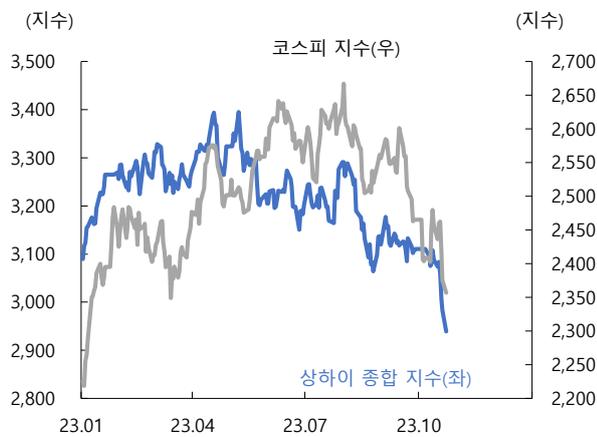


그림2.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위안화 추가 약세가 제한되고 있지만 위안화 추가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음



그림3. 중국 인민은행 고시환율과 역외 달러-위안 환율간 괴리폭이 확대되고 있음



그림4. 내년 1월 대만 대선 앞두고 중국 정부가 폭스콘에 대한 세무 및 토지 조사에 나서면서 중국의 대만 대선 개입 가능성이 불거짐



대만 총통선거 출마 선언하는 귀타이밍 폭스콘 창업자

자료: Bloomberg, CEIC, 연합뉴스포맷(10월 23일 기사)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## ■ 중국 금융시장,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트리플 약세 현상 심화

- 상하이 종합지수, 연일 연저점 경신 속에 10 월에만 5.5% 하락
  - 미국 고금리와 중동 리스크 등으로 주요국 금융시장의 트리플 약세 현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금융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모습임. 특히, 연일 연저점을 경신 중인 중국 증시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
  - 상하이 증시는 10 월들어 5.5% 하락하면서 올해 반등 폭을 모두 반납하고 연간 누적기준으로 4.85%(10 월 23 일 기준)의 하락폭을 기록함. 기술주 중심의 선전지수는 더욱 부진한 모습임. 연간 누적기준으로 10%의 하락세를 보임
- 위안화 약세 압력도 확대 중
  - 달러 강제 여파도 있지만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하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재차 확대되고 있음. 달러-위안 환율이 전고점 수준에 다가서고 있음
  - 23 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(SAFE) 통계에서 중국 은행 고객의 외화 송금은 지난달 마이너스(-) 539 억달러로 집계됨. 이는 월별 기준 지난 2016 년 1 월 이후 가장 큰 유출액임. 중국 역대 은행들은 또 지난달 고객들에게 총 194 억달러의 외화를 순매도했는데 미-중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8 년 11 월 이후 최대치임(연합인포맥스 10 월 23 일 기사 참조)

## ■ 중국 금융시장 불안 요인 : 대만 대선관련 정치적 개입도 한 요인

- 대외 불안 리스크, 중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그리고 대만 대선 관련 리스크
  - 3 분기 GDP 성장률 및 9 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각종 대외 리스크, 즉 미국 고금리 현상과 중동 불안 등도 작용중이지만 중국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도 큰 몫을 하고 있음
  - 즉,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 현상에는 비구이위안이 만기가 도래한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 부채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이 우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중임. 여기에 미-중 갈등 격화로 인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도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  - 동시에 대만 대선을 둘러싼 중국의 간섭 우려도 주가 조정 폭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함. 중국 정부가 대만 주력 기업인 폭스콘에 대한 세무 및 토지 조사에 나선 것이 "정치적 이류"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. 내년 1 월 13 일 대만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정치적 개입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
  - 대만 대선 판세를 보면 현 집권여당인 민주진보당(민진당)의 라이 후보가 친중 후보인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앞서고 있음. 참고로 14 일 발표된 대만 여론조사를 보면 민진당 라이 후보의 지지율은 30.1%로 민중당 커 후보(24.5%),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(17.3%) 그리고 무소속 췌타이밍 후보(11.3%)를 모두 앞서고 있음
  - 무소속 췌타이밍 후보의 경우 폭스콘 창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폭스콘을 압박해 췌타이밍 후보의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. 췌타이밍 후보 사퇴를 통해 친중 성향인 국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
  - 만약,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가 내년 대만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대만 TSMC 를 안고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 미국 전략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는 등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여지가 있음
- 중국 금융시장 불안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약재
  - 미국 고금리로 긴축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 입장에서 중국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대만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른 약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. 대내외적으로 박스피 리스크와 원화 추가 약세 리스크가 해소되기보다 누적되는 분위기임

**Compliance notice**
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 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